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월 4주 ~2월 1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2026년 EU 자금 유입 '사상 최대' 전망, 폴란드 투자·GDP 성장 견인(1.19)
 - 전문가들은 2026년 EU 기금의 폴란드 유입이 약 1,002억 즈워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, GDP 대비 약 2.5% 규모
 - 2025년에는 EU 기금 약 574억 즈워티가 유입됐으며, 다년재정프레임 워크(MFF 2021 - 2027)와 국가재건계획(KPO) 자금 집행이 중첩되며 흡수 속도 가속
 - 2026년에는 결속정책 자금과 KPO 보조금 집행이 동시에 본격화되며 공공투자 확대의 정점 도달 예상, 이후 2027년부터는 유입 속도 둔화 전망
 - EU 기금 유입은 공공 고정자본형성(GFCF)의 핵심 재원으로, 인프라·토목·건설 부문 투자 및 건설·조립 생산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
 - Credit Agricole는 2026년 폴란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8.5%로 가속(2025년 5.8%)할 것으로 전망
 - 공공투자 확대는 민간기업 설비·생산능력 투자 확대를 유도, 특히 건설·토목·프로젝트 관리 관련 산업에서 과급효과 확대 예상
 - 2025년 1~11월 기준 EU 재정전망 자금 244억 즈워티, KPO 보조금 189억 즈워티 집행, 연말 기준 각각 90%, 50% 집행을 추정
 - 2026년 EU 자금 유입 증가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경기 회복 국면을 본격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, 폴란드 경제 성장률과 투자 사이클의 정점 형성 요인으로 평가됨
- 폴 대통령, 2026년 예산안 서명 및 헌법재판소 회부, 대규모 국방·사회지출과 고적자 구조(1.19)
 -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2026년 예산법에 서명하면서도 헌법 합치성

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회부 결정, “선거 공약 미이행과 신뢰 위기” 예산이라고 비판

- 2026년 경제성장률 3.5%, 물가상승률 3% 목표 설정, 예산적자 한도 2,717억 즈워티로, 일반정부 적자 6.5% GDP 목표
- 정부 세입 6,472억 즈워티, 지출 9,189억 즈워티로 대규모 재정지출 구조이며, ‘가족 800+’ 아동수당 등 주요 사회정책 전액 반영
- 보건 지출 2,478억 즈워티, 국방 지출 2,000억 즈워티로 GDP 대비 4.81% 수준, 사상 최대 군비 및 NATO 최고 수준 국방비 유지
-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내각의 재정계획을 “신뢰·효율·정책 역량의 위기”라고 평가, 헌법상 거부권은 없으나 위헌 심사 요청
- 재무·경제부 장관 도만스키는 헌법재판소 회부를 “정치적 연극”이라 일축, 해당 예산을 “안보·투자·국민 지원 예산”으로 규정
- 투스크 총리는 고적자 감수하더라도 최대 군사력·대규모 투자·고성장·저실업 달성을 강조, “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”고 발언
- 종합적으로 2026년 폴란드 예산은 안보·사회·투자 중심 확장재정 기조로, 정치권 갈등 속에서도 국방 강화와 복지 확대를 병행하는 고부담·고적자 구조가 확정됨

○ 폴 실업률 2025년 12월 5.7%로 소폭 상승, 고용 둔화 신호(1.27)

- 통계청(GUS)에 따르면 2025년 12월 폴란드 실업률은 5.7%로 전월 5.6%에서 소폭 상승
- 전국 실업자 수는 88만 7,900명으로, 11월 87만 3,600명 대비 약 1만 4,300명 증가
- 계절적 요인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연말 고용 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
- GUS는 2025년 12월 기업 고용이 전년 동월 대비 평균 0.7% 감소했다고 발표, 고용 감소 흐름 지속
- 한편 EU 통계청(Eurostat) 기준으로 2025년 11월 폴란드 실업률은 3.2%로 EU 27개국 중 최저 수준 중 하나 유지

- 국내 통계 기준 실업률은 완만한 상승세이나, EU 비교 기준에서는 여전히 매우 양호한 노동시장 유지
- 종합적으로 폴란드 노동시장은 연말 경기 둔화로 단기적 고용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나, EU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실업률로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, 2025년 GDP 성장률 2.2% 기록(1.16)

-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.2%를 기록했다고 발표, 러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공격과 인구 유출,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제한적 성장 달성
- 성장 동력은 국내 상거래, 건설, 방산 제품 생산, 철강·금속 산업이 주도했으며, 국방 관련 생산 확대가 경기 하방을 부분적으로 보완
-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실질 GDP의 약 30%가 소실됐으며, 2024년 기준 경제 규모는 전쟁 이전 대비 78% 수준에 머무는 구조적 회복 지연 상태
- IMF에 따르면 2025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는 약 2,100억 달러 규모
- 2025년 성장 제약 요인으로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, 기상 악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, 물류 차질 등이 지적
- 주요 작물 수확량 급감: 대두 생산 -26.9%, 해바라기 -15.8% 전년 대비 감소, 국내 가스 생산 시설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직접 타격
- 우크라이나 경제는 EU·IMF·동맹국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, 2025년 12월 EU는 900억 유로 대출 승인, 2022년 이후 EU 총 지원 규모는 1,930억 유로(군사·재정·인도 포함)
- 미국은 과거 최대 지원국이었으나,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
- 정부는 외부 금융 지원과 방산·인프라 재건 투자가 중기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, 전시 체제 하의 '저성장 안정 국면'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

- 우크라이나, '25년 인플레이션 하회, '26년 금리인하 사이클 개시 전망(1.21)
 - 우 중앙은행(NBU)은 2025년 말 인플레이션이 당초 전망이었던 9.7% 보다 낮은 8.0% 기록
 -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하회의 주된 요인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작황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압력 약화
 -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일관된 긴축 기조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며, 상품·서비스 전반에서 물가 상승율이 둔화되고 근원물가도 감속 추세
 - 서비스 물가는 노동시장 개선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압력 완화
 - NBU는 2026년에도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, 2026년 1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 가능성 제시
 - 그간 금리 인하를 제약했던 외부 재원 조달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통화 완화 여건 개선
 - 전력 인프라 공격의 물가 영향은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되는 동시에, 소비 위축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
 - NBU는 통화정책 완화 전환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, 전시·에너지 리스크 속에서도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노르웨이, Orlen에 북해 신규 석유·가스 탐사·생산권 6건 제안(1.13)
 - 노르웨이 에너지부가 연례 APA(사전 정의 지역) 라이선스 입찰 결과에 따라 폴란드 에너지 대기업 Orlen에 북해 대륙붕 신규 탐사·생산권 6건의 지분 취득을 제안
 - 제안된 광구들은 Skarv, Vilje, Yme, Yggdrasil 등 Orlen 기존 자산 인근에 위치해,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투자비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
 - 이 중 하나인 빅토리아(Victoria) 가스전은 2000년 발견된 비전통 압축가스 자원으로, 추정 매장량이 약 1,400억m³에 달하는 노르웨이 최대 미개발 가스전 중 하나

- Orlen의 노르웨이 자회사 Orlen Upstream Norway는 Victoria 광구 지분 20%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받았으며, 프로젝트 운영사는 Aker BP가 맡을 예정
- Orlen 경영진은 최근 시추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비전통 가스 자원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
- 회사 측은 이번 라이선스가 Orlen의 노르웨이 가스 생산 확대와 유럽 가스 공급 다변화 전략에 있어 '돌파구'가 될 수 있다고 강조
- 본 제안은 폴란드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, 북해를 핵심 가스 공급원으로 삼으려는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과도 부합하는 행보로 해석됨

○ Orlen, 노르웨이 북해서 신규 가스전 '시셀(Sissel)' 발견(1.20)

- Orlen Upstream Norway와 Equinor가 노르웨이 대륙붕 중앙 북해 PL1137 라이선스 구역에서 신규 천연가스 자원 발견, 2025년 12월 탐사 시추 개시 후 39일 만에 완료
- 탐사정(총 길이 4,359m)에서 응축가스 포함 가스 매장량이 6.3백만~28.3백만 배럴 석유 환산(boe) 규모로 추정, 최대 약 10억m³의 가스 생산 가능
- PL1137 라이선스는 Orlen Upstream Norway와 Equinor가 50:50 보유, Equinor가 운영사이며 Orlen은 2024년 KUFPEC Norway 인수를 통해 지분 확보
- 시셀 가스전 개발 여부는 경제성·기술성·운영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파트너 공동 결정 예정
- 시셀 가스전은 북쪽 5km에 위치한 Utgard 유전 인프라와 해저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 가능, Utgard는 Sleipner Ost·Vest 플랫폼 단지 및 Gungne·Gina Krog 유전과 연계된 생산 허브
- Orlen은 2025년 Sleipner 지역 생산량이 노르웨이 총 생산의 약 30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, 2026년에는 인근 Eirin 유전 가동 개시 예정
- Orlen CEO Fafara는 이번 발견이 노르웨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룹 전략 목표 달성의 이정표라고 언급

- 신규 자원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개발이 가능해 투자비 절감 및 조기 상업화가 가능하며, Utgard 유전의 자연 감산분을 보완해 설비 수명 연장 효과 기대
 - Orlen은 노르웨이산 가스를 발틱 파이프(Baltic Pipe)를 통해 폴란드로 수송 중이며, 이번 발견은 폴란드 및 중부유럽 가스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전망
 - Orlen은 향후에도 노르웨이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해 자국 수요 기반의 자체 생산 비중을 높이고, 다에너지(석유·가스·정유·재생 에너지·SMR) 전략을 지속 추진할 방침
- 폴, 홍수 피해 지역 국도 복구 및 신설 교량 건설 착수(1.14)
- 폴 국가도로청(GDDKiA)이 Duna Polska와 Krapkowice 구간 DK45 국도 확장·복구 및 교량 건설 계약을 체결, 총 사업비는 약 181.6 백만 즈워티
 - 본 사업은 홍수로 단절된 DK45 국도의 연속성 회복이 핵심 목표로, DW409 - DW416 구간 약 1.2km 도로 재건, 오소보워가장 및 물리누프카 운하 교량 2개 철거·재건, 교차로 확장, 보도·갓길 및 배수시설 복구가 포함됨
 - 계약 기간은 총 40개월, 이 중 17개월은 기본·실시설계 및 건설허가(ZRID) 취득에 사용되며, 실제 공사는 2027년부터 2개 건설 시즌에 걸쳐 진행될 예정
 - 별도로 크라프코비체 지방자치단체가 길이 600m, 폭 14m의 오데르강 신설 교량과 접속도로·회전교차로 2곳(DK45, DW416, DW423 연결)을 건설하며, 보행·자전거도로도 포함
 - 해당 교량은 폴란드 정부의 '지역교량 프로그램(Bridges for Regions Program)'의 공동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
 - GDDKiA와 크라프코비체 시는 단일 통합입찰 방식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, GDDKiA가 총괄 조정자 역할을 맡아 국도와 교량 사업의 기술적·행정적 일체화를 보장
 - 이번 투자는 홍수 이후 지역 교통망 복원과 국도 - 지방도 연계 강화,

그리고 오폴레州的 물류·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프라 재건 사업으로 평가됨

○ Grupa Azoty, GA Polyolefins 매각 위해 5.9억 즈워티 대규모 손상차손 반영(1.15)

- 폴 최대 국영화학기업 Grupa Azoty가 자회사 GA Polyolefins 매각을 앞두고 관련 대출금을 손상자산으로 분류, 586백만 즈워티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
- 손상차손은 GA Polyolefins에 제공한 대여금(loan)에 대해 설정된 것으로, 2025년 개별재무제표의 금융비용으로 반영되어 총이익을 5.86억 즈워티 감소시키지만 EBITDA에는 영향 없음
- 이연법인세 조정 380만 즈워티 반영 후 순이익 기준 총 영향은 589.8백만, 다만 연결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도록 구조화
- Skolmowski CEO는 “Grupa Azoty는 비료(fertilizer) 부문에 집중하고, 재무적 부담이 큰 GA Polyolefins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”이라고 강조
- Grupa Azoty는 Orlen과 GA Polyolefins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, 카운터 오퍼로 Cash-free, Debt-free구조로 1,022백만 즈워티를 매각 대금으로 제시, 2026년 6월 30일까지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함
- 제안 조건에는 GA Polyolefins의 구조조정 절차가 포함되며, 이는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 감축과 채권자와의 합의 도출을 통해 정상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
- Skolmowski CEO는 Polimery Police 실패 원인으로 시장 악화 미 반영, 과도한 차입 구조, 잘못된 투자 판단을 지적
- 프로젝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 요청이 제기됐으며,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(Hyundai Engineering)을 상대로 오스트리아 VIAC 국제중재에 계약 불이행 소송도 제기한 상태
- Grupa Azoty는 현재 GA Polyolefins 자산가치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, 향후 연결재무제표 추가 손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
- 이번 조치는 비핵심·고위험 석유화학 투자에서 철수하고, 유럽 1위권

경쟁력을 가진 비료·농화학 중심 기업으로 재편하려는 구조조정 전략의 핵심 단계로 평가됨

- GA Polyolefins 투자 정리 수순 속 은행 채권 회수 압박 지속(1.20)
 - Grupa Azoty와 자회사 GA Polyolefins는 비료 중심 전략에 따라 Polimery Police 프로젝트에서 철수 결정, 총 약 70억 즈워티 규모 손상차손 인식
 - GA Polyolefins에 제공한 대출을 부실자산으로 분류, 모회사 Grupa Azoty는 5.86억 즈워티, Grupa Azoty Police는 6.61억 즈워티 손상차손을 각각 반영(2025년 재무제표 기준)
 - Skolmowski CEO는 프로젝트 착수 당시 시장 악화 및 과도한 재무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, 다수의 불규칙 사항이 확인돼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
 - GA Polyolefins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(HEC)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을 이유로 비엔나 국제중재센터(VIAC)에 중재 신청
 - Grupa Azoty는 Orlen과 수개월간 매각 협상 진행 중이며, 100% 지분을 부채 없는 구조(cash-free, debt-free)로 약 10.22억 즈워티에 매각하는 안을 제시, 6월 30일까지 거래 종결 목표
 - 매각 조건에는 GA Polyolefins의 구조조정 절차 착수, 채권단과의 부채 감면 합의, 프로젝트 회사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가 포함
 - Bank Pekao 등 대주단은 총 약 39.5억 즈워티 규모의 대출을 만기 도래(declared due) 처리, 채무 재조정 협상 결렬로 GA Polyolefins는 상환 불능 상태
 - 시장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상당 부분 대손충당금을 반영했으나, 매각 성사를 위해서는 약 28억 즈워티 부채 탕감과 Grupa Azoty의 대여금·출자금 일부 포기가 필요
 -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지분 17.7%를 Grupa Azoty가 재매입해야 Orlen에 100% 지분 매각 가능, 이 과정에서 매각대금 일부가 현대 측에 이전될 가능성

- 프로젝트 완공에는 추가 2억 즈워티, 가동 개시에는 추가 2억 즈워티가 필요하며, 연간 EBITDA 전망은 기존 7억 즈워티에서 현재 3억 즈워티로 하향 조정
- 중국발 프로필렌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악화, 미국과 같은 저가 원료 접근성이 없는 폴란드에서는 낮은 수익률 구조 불가피하다는 평가
- 분석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해결이 Azoty 그룹 전반의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며, 높은 부채 의존도와 2030년 이후에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및 투자심리 회복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

○ Polimery Police 가동 중단 지속, 기술 결함·시장 악화로 재가동 불가(1.27)

- GA Polyolefins가 운영하는 Police 폴리프로필렌 공장이 심각한 기술적 문제와 시장 환경 변화로 장기간 가동 중단 상태 지속
- 회사 경영진은 Police 시의회에 출석해 구조조정 및 재무 안정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
- 핵심 문제는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기술 결함으로, 연속 공정 설비 특성상 잦은 비 계획 정지가 발생하며, 설비 손상 및 비용 급증, 대규모 설비 보수 없이는 안정적 연속 가동 불가능
-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폴리프로필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유럽 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, 투자 당시와 전혀 다른 수익 구조 형성
- 회사 측은 “기술적으로 안정 가동이 가능했다면 저수익 상황에서도 생산 지속이 가능했겠지만, 현재는 기술 문제가 결정적 제약”이라고 설명
- 재무·세제 지원 요청 주요 내용은 ▲항만 인프라 재산세 면제(연간 약 10.5백만 즈워티 절감), ▲인프라 일부를 항만 시설로 인정(최대 연 25백만 즈워티 감축 가능), ▲과거 2년간 재산세 과납분 상계 처리
- 회사는 세제 완화가 Orlen 등 신규 투자자 유치와 설비 개보수 자금 확보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
- 재가동 일정과 관련해, 경영진은 설비 전면 보수는 겨울 이전 완료 필수라며, 기상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현실적인 재가동 시점은 2026년 봄으로 전망
- Police 지방정부는 단기 재정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, 장기적 고용 유지·

지방세 기반 확보를 위해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적·재정적 검토 착수

- 본 사안은 폴란드 최대 화학 투자 중 하나로 평가받던 Police 프로젝트가 기술 리스크와 시장 변화에 동시에 직면한 구조적 위기 사례로, 구조조정·설비 보수·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평가됨

○ 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조건 개정 추진에 산업계 반발(1.15)

- 정부는 재생에너지(RES) 신규 설치의 계통연계 조건 발급 과정 투명화·용량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법(Energy Law) 개정을 추진
- 브로흐나 에너지부 차관에 따르면 폴란드에 발급된 총 계통연계 조건 240GW 중 150GW가 재생에너지, 90GW가 저장설비용이며, 36GW가 이미 운영 중, 추가 50GW 건설 예상
- 상위 10~12개 개발사가 전체 조건의 50% 이상(약 120GW)을 보유, 일부 기업은 태양광 30GW까지 독점
-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통연계 조건 발급 투명화, 공개 플랫폼 구축, 처리 상태·거부 사유·잔여 용량 등 정보 제공
- 연계비 선납 kW당 30→60즈워티, 최대 600만 즈워티, 신청 수수료 최대 10만 즈워티, 1kV 이상 설비는 보증금 의무화
- 연계 계약 유효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었으며, 계약 단계에서 조건 재검증 가능
- 연계 완료 48개월 의무 삭제, 이행 실패 시 조기 계약 거부 가능
- 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목표는 계통 연계 독점·프로젝트 지연 문제 해결, 투자자 확실성 제고, 건전한 프로젝트 신속 추진
- 산업계는 기존 계약·연계 조건에도 새로운 비용과 보증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법 적용의 소급 문제를 우려, 특히 중소·폴란드 기업 피해 가능성 강조하며 개정안에 반발
- 정부 측은 법의 소급 적용 주장 반박, “계통연계 조건만 발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”고 설명

○ 폴란드·리투아니아, 전력망 추가 동기화 추진, 지협 구간 지중

케이블 건설(1.15)

- 리투아니아 고르바체프스키 에너지부 차관 발표에 따르면, 양국은 Suwałki 지협(Ełk~Gize) 구간에 700MW급 지중 케이블을 설치해 상업용 전력망 동기화를 추진
- 이번 동기화는 기존 기술적 연계·주파수 유지·전력망 균형 관리에 이어 상업용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통합 확대를 목표
- 2025년 2월 9일, 리투아니아·라트비아·에스토니아 전력망이 유럽 대륙망과 동기화되었으며, 당시 LitPol Link를 통해 구현
- 폴란드 측 PSE와 리투아니아 측 Litgrid가 2개 변전소 건설 계획, 이를 통해 북동부 폴란드 풍력 발전원 추가 연결 가능
- 고르바체프스키 차관은 이번 투자가 국경 양측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'그린 전력망' 강화 프로젝트라고 평가

○ Unimot CEO, 2030년대 SMR 상용화에 회의적 입장 표명하며 정책·재원·제도 불확실성 지적(1.15)

- 폴란드 국가에너지기후계획(NECP)은 2030년대 원자력 도입을 전제로 2040년 원전 설비용량 5~6GW를 전망(초대형 원전 Choczewo 최대 3.7GW 포함)
- 폴란드 Unimot CEO 시코르스키는 “향후 10~15년 내 폴란드에서 SMR 1기라도 건설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”라며 정부의 낙관적 일정에 회의적 입장 표명
- Unimot은 2021년 미국 NuScale과 협력 계약을 체결, SMR(VOYGR)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나, 미국 유타 파일럿 프로젝트가 경제성 문제(발전단가 약 85달러/MWh)로 중단되며 사업 불확실성 확대
- 시코르스키는 “미국에서는 저가 가스와의 경쟁이 어려웠으나, 유럽에서는 85달러/MWh가 장기 PPA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수준”이라며, NuScale이 폴란드·루마니아·영국을 전략 시장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
- Unimot은 직접 투자자가 아니라 기술공급사(NuScale)와 대형 산업

소비자를 연결하고, 장기 PPA·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중개 모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

- 그는 “민간 SMR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로드맵이 부재하다”라며, 국영기업과 동등한 인허가·제도적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
- SMR은 서방에서 상업 운전 사례가 없어 금융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, 국가 재정 지원이나 공공 보증 없이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곤란하다는 평가
- EU 기후 목표 유지 시 석탄 발전 퇴출로 저탄소 전원 수요는 증가하겠지만,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들은 장기 전력가격 예측 불확실성으로 PPA 체결에 신중한 태도
- 시코르스키는 “폴란드는 아직 원전이 전무한 시장으로, 인허가·인력·제도 인프라가 미비해 루마니아보다도 도입 여건이 열악하다”고 지적
- 결론적으로 “폴란드에서 20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”라며, 원전·SMR 확대 전략이 일정·재원·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산업계의 경고로 평가됨

○ Greenergy, 폴란드 단독형 BESS 2.1GWh 용량시장 계약 확보(1.20)

-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 Greenergy가 폴란드 송전망 운영사 PSE 주관 용량시장 경매에서 단독형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(BESS) 5개 프로젝트의 계약을 확보
- 대상 프로젝트는 Fred, George, Lucius, Hagrid, Harry로, 총 설비용량 534MW, 저장용량 2.1GWh 규모이며, 경매에 나온 전체 BESS 용량의 11% 이상을 Greenergy가 확보
- 해당 BESS는 전력계통 공급 부족 시 예비용량(reserve capacity) 역할을 수행, 2030년 1월부터 용량 서비스 개시 예정
- 용량요금은 kW당 연 465.02즈워티로 17년간 고정(물가연동), 최소 보장수익은 132백만 유로 초과로 추산
- 용량요금 외에도 도매전력 거래, 보조서비스(ancillary services) 시장 참여 등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며, 유럽 저장시장 표준 계약방식인 톨링(tolling) 계약 구조 적용 가능

- Greenergy는 별도로 EU 현대화기금(EU Modernisation Fund) 지원을 받아, 폴란드 정부로부터 34백만 즈워티 보조금을 확보
- 해당 보조금은 총 136MWh 규모의 단독형 BESS 4개 프로젝트에 투입되며, 2028년 이전 상업운전 개시 예정
- 이번 수주로 Greenergy의 폴란드 내 단독형 저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총 5GWh로 확대
- Greenergy는 유럽 단독형 저장 플랫폼 'Greenbox'를 통해 31GWh 규모 프로젝트를 확보, 유럽 주요 저장사업자 중 하나로 부상
- Greenbox 국가별 파이프라인은 폴란드 5GWh, 루마니아 7GWh, 독일 3GWh, 이탈리아 5.8GWh, 스페인 6GWh, 영국 4GWh
- 단독형 및 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 Greenergy의 전체 에너지저장 파이프라인은 75GWh에 달해, 유럽 전력계통 유연성 및 대규모 저장시장 핵심 사업자로서 입지 강화

○ RP Global, 폴 북서부에 대형 육상풍력단지 'Wałcz' 건설 착수(1.20)

- 재생에너지 개발사 RP Global이 폴란드 북서부 Wałcz 지역에 123.9MW 규모 육상 풍력단지 건설을 내달 착공 예정, 2027년 말 완공 목표
- 해당 풍력단지는 최종 건축허가를 획득하였으며, 가동 시 폴란드 최대급 육상 풍력단지 중 하나로 등극할 전망
- 본 사업은 2016년 도입된 강력한 입지 규제 '10H 규칙' 완화 이후 RP Global의 첫 대형 폴란드 프로젝트
- 10H 규칙은 풍력터빈과 주거지 간 최소 2,000m 이격을 의무화해 국토의 99.7%에서 풍력 개발을 제한, 폴란드 풍력 산업 급감 초래
- 규제는 2023년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며, 이후 RP Global은 폴란드 내 3GW 이상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 추진 중
- 해당 프로젝트에는 Nordex 터빈 21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, 터빈 높이 134m, 개별 용량 5.9MW임
- RP Global은 Wałcz를 시작으로 폴란드 내 독립발전사업자(IPP)로서

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할 계획

- **GDDKiA, 오폴레 주 도로 인프라 4.4억 즈워티 대규모 투자(1.22)**
 - 폴 국가도로청(GDDKiA) 오폴레 지부가 2026년 도로 인프라에 총 4.4억 즈워티 투자 계획 발표, S11 고속도로 건설·우회도로·홍수 피해 복구에 집중
 - 핵심 사업은 남북 교통축 S11 고속도로 약 45km 구간 착공, Kępno - Siemianice(12.5km), Siemianice - Gotartów(22.7km), Gotartów - Olesno(10.5km) 3개 구간 단계별 시공
 - S11은 피에카리 실롱스키 - 콜로브제크 연결 국가 간선축으로, 교량·육교·야생동물 통로 등 대규모 구조물 포함
 - 우회도로 건설 가속: Sidzina(DK46) 설계 완료·2026년 ZRID 인허가 목표, Prudnik(DK41) 3km '설계·시공 일괄' 발주, Łędziny(DK46) 환경허가 취득 추진, Brzeg(DK39) 지질조사 지속
 - 2024년 홍수 피해 복구 최우선 과제로 Głuchołazy 교량 보강(2026년 중 구조 완료, 2027년 준공 목표) 및 Krapkowice DK45 확장·오데르 강 600m 신규 교량 설계 진행
 - 지방 간선 확장: DK42·DK45(클루치보르크 - 프라슈카), DK46(다브로바 - 오폴레) 구간 개량 착수
 - 교통안전 강화 사업으로 보행자 인도·횡단보도 조명 설치, Prudnik·Paczków 등 소도시 가시성 개선 프로젝트 2026~2027년 시행
 - 본 투자로 오폴레 지역 도로망 효율·안전성 대폭 개선 및 중장기 국가 간선망(S11) 완성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됨
- **지멘스 모빌리티 - Newag, 고속철 시장 협력 MOU 체결(1.26)**
 - 지멘스 모빌리티와 폴란드 철도차량 제조사 NEWAG가 폴란드 철도 시장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, 전략적 파트너십 공식화
 - 협약은 기술 교류, 공동 기술평가, 엔지니어링·제조 역량 결합을 통해 혁신·안전·품질 강화를 목표로 하며, 특히 고속철 차량 생산과 첨단 유지보수 체계 협력에 중점

- 양사는 PKP 인터시티가 추진 중인 최고속도 320km/h 고속철 차량 도입 사업(KDP, Line Y, CPK 연계)에 공동 참여 가능성 시사
- 지멘스 CEO는 현지 부가가치 확대와 폴란드 철도 기술 발전 기여를 강조, NEWAG CEO는 “고속차량 분야에서 지멘스는 자연스러운 전략 파트너”라고 평가
- 양사는 지난 15년간 바르샤바·소피아 메트로 차량, 구동시스템·기어 박스, 차상 ETC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장기 파트너 관계
- 이번 협약은 NEWAG이 추진 중인 고속철 해외 전략 파트너 물색의 핵심 진전으로, 기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현대차그룹 계열 대신 지멘스와 협력 구도 형성 가능성 부각
- 향후 공동 기술평가 및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 최초 고속철 국산·현지화 모델 개발 가능성 확대
- 본 협력은 CPK·폴란드 고속철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돼, 폴란드 철도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유럽 고속철 시장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됨

○ Axpo - R.Power, 150MW급 대형 BESS 최적화 10년 장기계약 체결(1.26)

- 스위스 전력기업 Axpo와 바르샤바 소재 재생에너지 개발사 R.Power가 Jedwabno 대형 에너지저장시설 최적화 운영을 위한 장기 계약 체결
- 대상 설비는 출력 150MW, 저장용량 300MWh 규모로, 완공 시 폴란드 최대급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(BESS) 중 하나가 될 전망
- Axpo는 2028년 계통 연계 이후 2037년 말까지 10년간 시장 참여, 수익 극대화, 밸런싱 서비스 대응 등을 포함한 통합 최적화·상업화 서비스 제공
-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용량시장 경매에서 17년 장기 용량계약(2029년 개시)을 확보했으며, 이에 따라 2028년 말까지 국가 전력망 연결 의무
- R.Power는 Jedwabno 외에도 Herby·Tursko Wielkie·Gdańsk 등 총 9개 저장 프로젝트(총 1,667MW / 6,342MWh)에 대해 용량계약을 확보, 누적 수익 약 16억 즈위티 전망
- R.Power 전체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은 32GW 이상으로, 독일 시장

진출 및 태양광-저장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확대 병행 추진

- Axpo는 2025년 이후 EDP Renewables(60MW/241MWh), Energix(Nowy Czarnów) 등 폴란드 내 다수 저장시설 최적화·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에너지저장 상업운영 분야 핵심 사업자로 부상
- 이번 계약은 폴란드 전력시장 내 대규모 저장설비의 상업화 모델 정착과 계통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

○ PGE, Rybnik·Gryfino 최대부하 가스발전소 시공사 선정(1.27)

- PGE는 Rybnik와 Gryfino에 건설할 개방형 가스터빈(OCGT) 최대부하 발전소의 EPC 일반계약자를 선정
- 각 발전소 용량은 약 588MW(약 600MW급)로, 폴리멕스 모스토스탈 - 지멘스 에너지 - 지멘스 에너지 글로벌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 후 최종 낙찰
- 두 프로젝트는 2025년 12월 용량시장(capacity market) 경매에서 15년 장기 계약을 확보, 국가 전력안보 핵심 설비로 지정
- 발전소 부지는 기존 가스·증기 복합발전소 인근으로, 그리피노 노베 차르노보(Dolna Odra 단지 인근), 리브니크 'Nowy Rybnik' 복합발전소 건설 현장 인접
- 입찰은 2025년 8월 공고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, 2025년 12월 단일 컨소시엄만 제안서 제출
- 투자 금액은 리브니크 14.6억 즈워티 + 4억 8,070만 유로, 그리피노 14.8억 즈워티 + 4억 6,910만 유로 규모
- PGE는 계약 체결 후 본격 착공 단계로 전환 예정, 피크부하·계통 안정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용 가스발전 역할 강화
-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폴란드의 탈석탄·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단기 조정전원과 전력안보를 보완하는 대형 가스발전 투자로 평가됨

○ EDP, 폴란드 첫 태양광+ESS 분산형 발전소 준공(1.28)

- EDP는 폴란드 법인 EDP Energia Polska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 Group PBI와 협력, 태양광 발전소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을 결합한 폴란드 내 첫 분산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
- 본 프로젝트는 폴란드 Świętokrzyskie 주 내 폐광 부지에 조성되어,

기존 산업지역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재개발 사례로 평가

- 태양광 설비 용량은 5.7MWp, 연간 약 6GWh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, 10MWh 규모의 ESS를 함께 구축해 에너지 활용 효율과 수요 대응 능력 제고
- 저장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잉여 전력을 저장 후 피크 시간대 활용함으로써 전력망 의존도 축소, 전력 가격 변동성 리스크 완화, 피크 요금 회피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기대
- ESS는 태양광 출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전력 공급 안정성과 운영 유연성을 강화하고, 기업의 탈탄소 및 ESG 목표 달성에도 기여
- EDP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에서 태양광+저장 결합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본격 상용화하며, 유럽 내 복합 에너지 솔루션 역량을 확대
- EDP는 2007년 폴란드 진출 이후 현재까지 유틸리티 규모 재생에너지 1GW 이상 설치, 분산형 태양광 계약 약 270MWp를 확보하며 폴란드 에너지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 중

○ R.Power - Cisco, 폴란드 태양광 470GWh 장기 PPA 체결(1.29)

- 폴란드 재생에너지 기업 R.Power는 글로벌 IT 기업 Cisco와 470GWh 규모의 장기 가상 전력구매계약을 체결
- 본 계약은 Sustainability Roundtable Inc.의 Net Zero Consortium for Buyers(NZCB) 중개로 성사됐으며,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지역 프로젝트 개발과 연계한 사례
- PPA를 통해 Wydartowo, Bieżyce, Ostrzeniewo III, Nowy Zagór III 등 폴란드 내 4개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
- 해당 프로젝트들은 2027년 상업운전(COD)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장기 오프테이크 확보를 통해 금융조달 안정성 제고
- Cisco는 이번 계약이 에너지 회복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부합할 뿐 아니라, 크라쿠프 연구·실험 시설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충족에도 기여한다고 설명

- SR Inc.는 글로벌 기업의 장기 PPA가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및 시장 신호 제공 역할을 한다고 평가
- R.Power는 이번 계약을 통해 중·동유럽 지역 내 다기술 (multi-technology)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의 입지 강화, 기업 PPA 기반 태양광 개발 역량을 재확인
- 본 사례는 폴란드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수요 기반 (corporate-driven) 신규 태양광 설비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우, 이동식·모듈형 에너지 설비 국가비축제도 구축 착수(1.13)

-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반복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비해 '이동식·모듈형 에너지 설비 국가비축(National Reserve)'을 구축하기로 공식 발표
- 해당 비축제도는 발전기, 이동식 변전설비, 모듈형 발전·열공급 장치 등을 사전에 확보해 공격 직후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쿨레바 부총리는 노르웨이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시설 물리적 방호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긴급 설비 수요를 전달했다고 설명
- 노르웨이는 2026년 겨울철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해 약 4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발표
- 러시아는 최근 대규모 공습에서 화력발전소에만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어, 국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가 시급한 상황
- 양국은 주택 재건도 논의했으며, 노르웨이의 '난센 프로그램 (Nansen Programme)' 예산은 2025년 850억 크로네로 당초 계획의 3배로 확대, 2030년까지 총 2,050억 크로네로 연장될 예정
- 우크라이나는 HOPE, RELINC, Re-Power 프로그램과 NEFCO(북유럽 환경금융공사)의 16백만 유로 규모 에너지효율 투자도 주요 국제 협력 성과로 강조

-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복력과 인도적 위기 대응 능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됨

○ EU 컨소시엄, 리비우 내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추진(1.13)

- 유럽 에너지 기업들로 구성된 H2EU+Store 컨소시엄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, 리비우주(州)에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
- 해당 지역은 풍력·태양광 발전 잠재력, 전기분해용 수자원, EU와 연결되는 가스관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드문 입지로 평가
- 타당성 조사에서 리비우와 이바노-프란키우스주가 천연 조건, 에너지 잠재력, 물류·수송 접근성 측면에서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됨
- 리비우주 내 부지 이미 확보, 1단계 사업에서 연간 약 9,000톤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설정
- 생산된 수소는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수출될 예정으로, 우크라이나를 EU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
- 본 사업은 EU의 수소경제 확대 전략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·산업 재건을 연계하는 상징적 사례로, 전후 서부 우크라이나가 유럽 청정 에너지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
- 특히 기존 가스 수송 인프라를 수소 운송으로 전환·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,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 및 탈탄소 정책과도 직결되는 프로젝트로 해석됨

○ 영국 Amber·우크라 Dragon Capital, 10억 유로 규모 EU-우크라 재건 투자펀드 출범(1.14)

- 영국 Amber Infrastructure와 우크라이나 Dragon Capital이 공동 운용하는 유럽-우크라이나 재건 투자펀드가 범유럽 심사 절차를 거쳐 공식 승인됨
- 본 펀드는 독일·이탈리아·폴란드·프랑스 정부, 각국 개발은행, 유럽 위원회(EC), 유럽투자은행(EIB)이 참여하는 범EU 공공-민간 협력

구조로 설계됨

- 공공 개발금융과 민간 자본으로 최소 10억 유로 이상 조성하여 우크라이나 핵심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목표
 - 투자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복구, 풍력·태양광 발전, 산업 생산 현대화,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으로, 우크라이나의 실물경제 회복에 집중
 -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독일재건은행(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, KfW) 및 공공 투자자가 출자하는 '퍼스트 로스 (First-loss) 트랜치'를 도입, 최대 2억2천만 유로 규모의 손실 흡수 안전장치를 구축해 추가 민간 자본 유치를 유도
 - 2026년 투자 목표는 8억 유로,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경우 2027~2028년 펀드 규모는 10억 유로 초과 가능성
 - 펀드 10억 유로 조성 시 총 투자 파급효과는 60~70억 유로(차입효과 6~7배)에 이를 것으로 추산
 - 해당 펀드는 2026년 여름 폴란드에서 열리는 '우크라이나 재건회의 (URC)'에서 공식 출범하며, 회의 직후부터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돌입할 예정
- **우크라이나, 도브라 리튬광산 개발에 179백만 달러 투자 유치(1.14)**
- 우크라이나 내각이 도브라(Dobra) 리튬 광구 개발 사업자를 생산물 분배계약(PSA) 방식으로 선정, 최소 179백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
 - 투자금은 지질 탐사 및 국제 매장량 감사에 12백만 달러, 채굴가능 광량 확인 후 채굴·가공 설비 구축에 167백만 달러 투입 예정
 - PSA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초기 생산수익의 약 13%를 확보하며, 향후 22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수익 배분 구조를 확보
 - 사업자는 Dobra Lithium Holdings JV, LLC로, 주주에는 미국계 TechMet와 The Rock Holdings가 포함되어 글로벌 핵심광물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 컨소시엄으로 구성

- TechMet는 4개 대륙 10개 광물 자산에 지분을 보유한 미국·EU 연계 핵심광물 투자 플랫폼으로, 리튬·니켈·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망 구축에 핵심 역할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본 프로젝트가 미국·EU 전략 투자자 참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편입을 가속화하고, 추가 해외투자 유치 촉진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
 - 본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리튬 자원을 서방 배터리·전기차 산업과 직접 연결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, 에너지 전환 및 재건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전망
- 슈미할 부총리, 흐멜니츠키 원전 신규 원전 조기 건설 추진 공식화(1.14)
- 우크라이나 신임 제1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데니스 슈미할이 의회 연설에서 원자력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가속화 방침을 공식 표명
 - 이미 설계·인허가 기반이 마련된 사업부터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, 흐멜니츠키(Khmelnytskyi) 원전이 신규 원전설비 건설에 가장 근접한 프로젝트라고 강조
 - 해당 원전 부지는 과거부터 3·4호기 증설용 인프라와 설계가 준비된 상태로, 전력 수급 안정화 및 탈화석연료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됨
 - 슈미할 장관은 동시에 국영 발전사 센트레네르고(Centrenergo)의 법인화(corporatization) 및 단계적 민영화 가능성도 지지하며 전력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표명
 -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5년 2월 불가리아로부터 러시아산 원자로 장비를 구매해 흐멜니츠키 2개 원전 설비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, 실제 건설 개시는 별도의 특별법 통과가 필요
 - 다만 2025년 4월 불가리아 정부가 벨레네(Belene) 원전용 미완성 원자로 2기의 매각을 거부하면서, 우크라이나의 원전 증설 계획은 대체 장비 조달 또는 새로운 국제 협력 구조가 요구되는 상황
 - 이번 발언은 전쟁 이후 전력 수요 급증과 EU 전력시장 연계를

대비해 대형 원전 중심의 기저전원 체계를 재확인한 것으로,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전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신호로 해석됨

○ 우크라, 라인메탈(Rheinmetall) 탄약공장 부지 최종 배정(1.14)

-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일 라인메탈(Rheinmetall)의 신규 탄약 생산 공장 부지를 새로 확정, 장기간 지연됐던 현지 탄약 생산 프로젝트가 본격 재개 국면에 진입
- 라인메탈 Papperger CEO는 “부지가 최종 배정되었으며, 행정·규제 절차만 마무리되면 즉시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”고 공식 확인
- 라인메탈은 이미 우크라이나용 탄약 생산설비 공급 계약을 수행 중이며, 이번 공장은 우크라이나 내 대규모 탄약 자급 생산기지로 구축될 예정
- 당초 공장은 2025년 11월 가동 예정이었으나,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지 변경 요구로 착공이 연기된 바 있음
- 라인메탈은 탄약 외에도 Lynx 보병전투차(IFV), 방공체계, 우주기반 정찰, 야전병원 등 우크라이나군 전력 전반에 걸친 핵심 방산 파트너로 협력 확대 중
- 장갑차 현지 생산 제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의 관심은 높으나, 대규모 현지 투자 재원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남아 있음
- 본 공장 건설은 우크라가 서방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산업 프로젝트로, NATO 표준 탄약의 현지 생산·조달 역량의 확대와 EU 방산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의 고도화를 의미함

○ 우크라 OKKO Group·Gadz-Agro, 농업사업 확장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추진(1.20)

- 우크라이나 대형 연료 유통기업 OKKO Group이 2023년 농업 부문에 진출, 기존 고객사인 Gadz-Agro와 50:50 합작 파트너십을 체결, 공동 성장 전략을 추진
- Gadz-Agro는 파트너십 체결 당시 경작지 26,000헥타르, 짓소 9,500두 규모였으며, OKKO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제안했으나 공동

사업 확장 방식으로 협력 방향 전환

- 2024년 양사는 토지 약 6,000헥타르를 추가 확보하고 축산 시설에 공동 투자, 현재 총 경작지 32,000헥타르와 소 11,000두를 보유
 - 본 사업은 OKKO의 연료·비료 공급과 Gadz-Agro의 축산·농업 생산이 결합된 수직통합 모델로, OKKO는 육류를 자사 가공시설에 공급받는 구조
 - 양사는 2030년까지 경작지를 10만 헥타르로 확대하고 소 사육 규모를 15,000두로 늘리는 한편, 바이오가스 생산 플랜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
 - 해당 프로젝트는 에너지(연료·바이오가스)와 농업(축산·경작)을 결합한 복합 사업 모델로,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동시에 목표
 - OKKO Group은 바이오가스를 통해 자체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와 탄소 저감, 농업 부산물의 에너지화(순환경제) 효과를 기대
 - 본 계획은 우크라이나 농업·에너지 융합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하며, 전후 재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 주목됨
- **우 정부, 전력 고립화 방지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 42개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 추진(1.20)**
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합 전력망에서 원자력발전소(NPP) 유닛을 분리해 지역별 ‘에너지 아일랜드’(전력망이 주변과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)를 만들고 민간에 대한 전력·난방 공급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전쟁연구소(ISW)가 경고
 - 우크라이나의 겨울철 전력 수요는 약 18GW 수준이나, 현재 생산량은 약 11GW에 그치며, 러시아의 추가 공습으로 원전 1기 이상이 전력망에서 이탈할 경우 공급 부족이 급격히 심화될 가능성
 - 1월 19일 기준,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 중이며, 최근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오데사 지역 주거지·에너지·가스 인프라가 피해를 입어 약 3만 800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
 -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파트너들과 총 42개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, 총 사업 규모는 약 10억 달러임

- 슈미할 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전력 생산·송전·저장 인프라 복구 및 보강, 분산형 발전 설비 구축, 긴급 예비 전원 확보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
 - 본 사업은 EU 회원국, 국제금융기구(IFIs), 양자 공여국, 민간 파트너의 재정·기술 지원을 결합한 다자 협력 구조로 설계됨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,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탄력성(resilience) 강화와 러시아 공습에 대한 구조적 대응력 제고를 목표로 함
 - 국제 파트너들은 추가 재원 조성과 에너지 장비(변압기, 이동식 발전기, 배전 설비 등) 긴급 지원을 병행해 전력망 붕괴를 방지한다는 방침
- **Notus Energy·Horizon Capital, 오데사에 2억 유로 규모 풍력발전 단지 공동 개발·금융 합의(1.21)**
- 독일 에너지기업 Notus Energy와 미·우크라 합작 투자사 Horizon Capital, 오데사 지역에 124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금융 계약 체결
 - 총 사업비는 220백만 유로 이상으로, 자기자본 투자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병행해 조달 예정
 - Horizon Capital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'Horizon Capital Catalyst Fund'를 설립, 본 풍력사업을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
 - Catalyst Fund가 지분 45%를 보유하며, Notus Energy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건설·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주관 사업자로 참여
 - 본 사업은 Notus Energy가 우크라이나에서 추진 중인 3개 풍력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, 3개 사업 합산 설비용량은 총 300MW 규모
 - 해당 프로젝트는 Notus Energy의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개발 포트폴리오 (총 1.3GW 이상 목표)의 핵심 사업으로, 전후 복구 및 에너지 자립 강화 전략의 일환
 - 이번 투자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인프라 재건과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유치, 지역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

○ 미-우 '8,000억 달러 번영계획' 서명 연기, 여전히 체결 낙관(1.23)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서명 예정이던 '번영계획(prosperity plan)'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나, 향후 진전과 서명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표명
- 해당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후 경제회복을 위한 10년 장기 프레임워크로, 미국·EU·G7과 함께 총 8,000억 달러 규모의 공공·민간 혼합 투자 동원을 목표로 함
- 젤렌스키는 본 계획을 "여러 문서 묶음(bundle of documents)"으로 규정하며, 자금 출처·조달 구조·우크라이나의 실제 수혜 범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
- 1.22 다보스에서 젤렌스키-트럼프 정상회담(1시간) 개최, 안보 보장과 경제 협력 논의 진행, 미-우크라 자유무역지대(무관세 지역) 구상에 대해 트럼프가 원칙적 확인
- 미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미-우크라 무관세 지대를 "게임 체인저"로 평가하며 공개 지지
- 평화협상 병행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대미 경제협력 카드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·외교적 지지 확보를 시도 중이며, 미·우·러 3자 협상은 1.23부터 UAE에서 진행 예정
- 자금 조달 방식은 보증, 위험분담, 혼합금융(blended finance) 등 금융 기법 활용, 중점 투자 분야는 에너지·인프라·산업·인적자본 등 전쟁 피해 핵심 부문
- 당초 1월 중순 백악관 서명 추진하였으나, 유럽 권고로 다보스에서 서명 시도, 현재는 절차 미완으로 연기되었으며, 줄속 체결 방지 차원에서 추가 조율 진행 중
- 본 계획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재정·산업 프레임으로, 미-EU-G7 주도의 대규모 재건 투자 체계 구축과 미-우크라 경제·통상 관계의 전략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 개최 예정(1.20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 (주요동향) 현지 SPC(Grupa Azoty Polyolefins S. A.), EPC계약에 의거하여 HEC을 상대로 하는 국제중재* 개시를 승인('12.29)

* SPC→VIAC(오스트리아 빈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센터)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
○ (주요동향) '26년 1월 이사회 부의(투자) 후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
'26년 2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설립) 후 SPA 체결
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심의 및 금융종결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

○ (주요동향) 이사회 승인 완료('12.23), 현지 대출 계약 체결 예정('1.27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월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1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